

이아나

이아나는 고토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용암 동굴입니다. 후쿠에지마 섬의 남쪽 끝, 도미에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용암대지에 있습니다. 이 대지(臺地)는 18 만 년에서 5 만 1000 년 전 사이에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용암의 분화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. 이런 종류의 흐름이 빠른 용암은 종종 용암 동굴을 만들어내며, 그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용암 동굴은 용암이 분화 지점에서 흘러나올 때에 형성되는 터널입니다. 용암이 흐르면 그 표면이 공기에 노출되어 차갑게 굳기 시작합니다. 이윽고 굳은 지각이 형성되는데, 그 아래에는 아직 녹아 있는 용암이 땅속에서 터널 상태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용암의 일부가 계속 식어 지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 흐름 용암이 남지 않게 됩니다. 마지막 용암이 굳었을 때 남는 것은 동굴 같은 터널입니다.

이아나의 입구는 높이 3.5m, 폭 6.5m 인데 곳에 따라서는 높이 6m, 폭 13m 에 이르는 터널도 있습니다. 입구에서 400m 지점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터널의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습니다. 물은 약간 바닷물과 민물이 혼합된 색이며, 수위가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미루어 이 터널은 지하 깊은 어딘가에서 바다와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지하 저수지는 고유종 망둑어인 도쿠쓰미미즈망둑어와 같은 희귀한 동굴 생물에게 적절한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한편 이아나에서 물에 잠기지 않은 부분에는 긴날개박쥐, 고비토카부토박쥐, 큰발윗수염박쥐 등의 서식처가 있습니다.